



일평생 제주 풍경 품었던 화가를 기억하며

김택화미술관 조천읍 신흥에 첫 현대미술 전공 제주 작가 중앙 화단 떠나 고향서 작업 유화·스케치 4천여점 소장 2층 규모 전시실·아트숍 등



김택화의 '삼양'.

일평생 제주의 풍경을 고집스레 그렸던 화가 김택화(1940-2006). 그의 예술세계와 삶의 여정을 담아낸 공간이 생겼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에 세워진 김택화미술관(관장 김동범)이다.

고인은 제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 중에서 처음으로 현대 미술을 전공했다. 제주출신 최초로 홍익대 미대에 진학했고 두 차례 제주미술협회 회장을 지냈다. 국내 최초의 추상표현주의 그룹인 '오리진' 창립 멤버로 신천지미술관 관장, 제주도립미

술관건립추진위원장을 역임했다. 스무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미술관의 소장품은 10호에서 300호에 이르는 유화 100여점과 스케치 작품 4000점이다. 이른바 중앙 화단의 명예를 뒤로 하고 홀연히 고향 제주로 내려와 40여년간 그려낸 작품과 그동안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던 방대한 양의 스케치를 보유하고 있다. 한라산 소주 '하얀 병'의 패키지 그림 원화와 1990년대 한라일보에 연재했던 현길인의 제주 4·3 소재 소설 '한라산' 삽화도 소개된다. 지

난달 제주도 1종 미술관으로 등록됐고 호암미술관, 성곡미술관 등을 거친 박천남 한국큐레이터협회장이 학예사로 근무한다.

미술관은 2층 규모로 제주 김석운 건축가가 설계를 맡았다. 제1전시실과 제2전시실, 자료실, 카페(화실커피), 아트숍(화방스토어)으로 구성됐다. 미술관의 로고디자인, 카페와 아트숍의 시각디자인은 봉가봉가 레코드의 수석디자이너 김기조가 담당했다. 특히 아트숍은 제주를 대표하는 기념품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운

영된다. 고인의 유화 작품을 재해석해 프린트한 요가 레깅스(요깅스)는 김택화미술관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아이템이고 드로잉 티셔츠, 유화 프린트 머그컵과 접시, 파우치, 쿠션, 실크스카프, 가방, 리사이클링 상품도 나온다. 카페의 테이블, 의자 등 가구와 오브제는 고인의 아들인 김도마 작가가 제주바다에 버려진 유목과 고재 등을 이용해 만든 업사이클링 작품이다.

개관식은 이날 16일 오후 3시. 문의 070-8778-0627. 전선희기자

고재만의

제주어기암한판

<182>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으뎡이 듣는다. "누님 세 물 맥언 왓수다. 경국곡 삼촌네 집이 간 지실 쯤센 허영 마정 와신디양 삼촌이 바디 갖당 양 핑 잡아 주켄 흠디다. 고향 공쟁이에 걸어진 핑 잘 시지양?"
쯤네가 쯤네. "기여게. 요뎡이야 핑은 잘 이신디 마레 톨쯤 톨양와사 허겨. 모뎡마루 옷언 모뎡 꼴아사 허겨게. 나가 핑을 못 잡노나마는 핑 잡는 건 삼촌신디 멧기곡 는 마레 꼴라이. 재게 강 일 쯤리라."
으뎡이 쯤없져. "알앗수다. 아이고 겐디 나신디 마레 꼴렌 흠데강? 마 망쟁이 마정 쯤뎡 쯤이레 가사 흠겠디마음."

* 제주어 풀이

*공쟁이(공장, 공장이) : <이름> 무엇이란 걸어두게 박아 놓은 못 따위나 꼬부라져서 걸어두기 좋게 된 도구의 총칭.
*마레(마레, 둘마레) : <이름> 두 개의 돌을 둥글넓적하게 다듬고, 서로 마주치는 바닥은 평편하게 하여 아래쪽을 고정시키고 위쪽에는 박아놓은 손잡이를 잡아 돌리면서 쌀이나 가루 따위를 만드는 맷돌. 집안의 필수품의 하나로 크거나 무게, 얇기에 따라 '몰마레'나 '정마레'로 나뉘기도 함.
*모뎡마루(모뎡마루) : <이름> 메밀가루.
*망쟁이(망대기, 망대, 망쟁이, 망쟁이) : <이름> 주로 곡식 따위를 담아두거나 담아 나르거나 할 때 쓰려고 짚을 곁에 엮어 만든 망대. 용도나 크기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함. '망쟁이, 착부지' 따위

-부호><이름><이름>(명사)<그림><그림>(형용사)<음><음>(동사)<어><어>(부사)<대명><대명>(대명사)<접><접>(수사)<스><스>(접속)<토><토>(조사)<예><예>(조사)<의><의>(의문말)<속><속>(속말)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1991)

달콤하고 따스한 타악의 울림을 따라

내일 김남훈 타악기 독주회 피아노·타악양상블 등 호흡



타악의 울림이 찬 계절을 깨운다. 이달 12일 오후 7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열리는 김남훈(사진) 타악기 독주회다.

김남훈씨는 제주대 음악학과를 거쳐 벨기에 안트워프 왕립음악원 석사,

벨기에 루뱅대학교 레넌스음악원 실내악 석사를 졸업하고 유럽 무대에서 활동했다. 2016-17년에는 제주문화예술재단 선정 신진예술가에 뽑혔다.

이번 독주회는 '바람의 울림, 재회'란 이름을 달았다. 타악 주자가 자유로운 템포로 표현하는 엠마뉴엘 세조네의 '마림바 솔로를 위한 낸시'를 시작으로 유쾌한 마림바 듀오 곡인 슈미트의 '2-게더(Gather)',

진 코진스키의 춤추는 듯한 타악기 듀오곡인 '송 앤 댄스', 비브라폰 대표곡을 피아노와 함께하는 버전으로 빛이날 마크 그랜워스의 '비브라폰과 피아노를 위한 블루스 포 길버트', 두 연주자가 하나의 마림바에서 마주보고 연주하는 이번 트레비노의 '2+1', 솔로 마림바와 세 명의 타악기 연주자를 위한 제시 몽크만의 '통과 의례'를 들려준다. 피아니스트 강한나, 타악기 주자 이은경, 로타 타악기양상블(고주원 송산호 강승준)과 호흡을 맞춘다. 전선희기자

문화가 짝지

락카데미 포크여행 공연

락카데미가 이달 18~20일 오후 7시 30분 문예회관 소극장에서 '김대익과 친구들의 포크 여행'이란 이름 아래 '도내 예술단체 활성화를 위한 작은 음악회'를 연다.

이 공연을 위해 1983년 MBC대학교예대 대상 수상팀 '에밀레'의 김대익, 2인조 '두가시(DUGASI)'의 조성진과 강운희, 밴드 '오버플로우'의 강현훈 유수민 김소연 등 6명이 프로젝트 팀을 꾸려 귀익은 노래를 들려준다.

예술집단 파수꾼 연극 '소풍'

예술집단 파수꾼(대표 조성진)이 두근두근시어터에서 정기공연 '소풍'을 무대에 올린다.

연극 '소풍'은 보통사람들의 이야기를 보편적 공감으로 이끌어내는 김나영 작가의 창작극을 성민철 연출로 재해석한 무대다. 조성진·김은정 배우가 중년의 부부로 나오고 이정아·이기문 배우가 노년의 부부로 출연한다. 공연 일정은 이달 14일 오후 3시와 7시, 15일 오후 3시. 문의 010-3548-7659.

예술공간 이아 예술축제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는 예술공간 이아는 이달 20~22일 예술축제 '일상, 겨울'을 연다.

이번 축제는 도내의 작가 기획전, 입주 예술가 9개실 오픈 스튜디오, 도민 참여 프로그램으로 짜여진다. 첫날 오후 4시 개막 행사에서는 작가와의 대화, 제라진소년소녀합창단 공연, '광화문연가'의 이견명과 '투란도트'의 박소연이 펼치는 뮤지컬 갈라콘서트가 마련된다. 064)800-9331.

제주대 내일 인권 심포지엄

제주대학교는 이달 12일 오후 1시 대학 아래컨벤션홀에서 '국가, 지역, 인권-제주에서 인권을 말한다'를 슬로건으로 '세계인권선언의 날 기념 인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국가, 법, 인권', '대학과 인권, 인권교육의 방향 모색'을 주제로 발표와 토의가 진행되고 '제주지역 인권의 현주소와 전망'을 주제로 대학생, 인권업무 담당자와 활동가들의 라운드테이블이 이어진다.

극단 가람 창작 악극 '가슴 아프게'

제주 해녀의 기구한 삶을 담아낸 창작 악극이 만들어졌다. 극단 가람이 제주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으로 초연하는 '가슴 아프게'다.

이상용씨가 극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가슴 아프게'는 고향을 떠나 일본에서 물질을 해야 했던 주인공 손이를 등장시켜 제주4·3과 6·25전쟁 등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온 몸으로 겪어야 했던 제주 어인들의 생애를 짚는다. 가람은 귀에 익은 20여곡을 끌어와 '한국형 뮤지컬 악극'으로 사무치는 그리움을 안은 채 먼 땅에서 생계를 이어갔던 제주 해녀들

의 애환을 그려낸다.

도쿄와 오사카에서 공연을 펼칠 때 만났던 재일제주인들에 대한 기억을 꺼내놓은 이상용 연출가는 "죽음의 문턱을 수도 없이 넘나들며 가족들을 위해 희생한 제주 해녀, 우리 어머니들이 떠올라 희곡을 쓰는 동안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고 했다. 고가영, 양진영, 박세익, 이순준, 차선영, 이순진 등이 출연한다.

이달 21일 오후 3시와 7시, 22일 오후 3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4층 공연장에서 볼 수 있다. 관람료 무료. 문의 064)722-0794.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당신의 소중한 여행이 시작되는 곳!

(주) 부민가자투어

☎ 748-3131

문의: 064-748-3131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우수관광사업 | KATA 회원 |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의회의 정회원
국내외항공권 / 히니온 / 단체여행 / 패키지여행 / 골프투어 / 전세버스대입 / 중국비자대입

JEJUair 제주항공 제주-방콕 직항 전세기 항공권 판매
(1인 왕복 항공권)

7월 19일부터 매일 운항

운항스케줄
제주-방콕 7C2243 21:40 - 01:25
방콕-제주 7C2244 02:25 - 09:55
3박5일 일정

태국 방콕 패키지 여행 599,000부터~
항공료 TAX 및 유류할증료 포함

12월1,2,8,9,15,16	545,000원
12월3,7,10,14,17	590,000원
12월4,5,6,11,12,13/1월 5,6,12,13,19,20,27	645,000원
1월4,7,11,14,18,21,26,28	660,000원
12월20,21,22,23,31 / 1월 1,2,3,8,9,10,15,16,17,25,29,30,31	715,000원
12월24,25,29,30/1월22,24	760,000원
12월18일 670,000원 19일 690,000원 12월26,27일 830,000원	
12월28일 785,000원 1월23일 880,000원	

계좌번호: 기업은행 064-748-3131 부민가자투어

북경 12월 14일, 19일
3박 4일 **579,000원**

상해 12월 12일, 19일
3박 4일 **669,000원**

대만 화련 12월 11일, 18일
3박 4일 **790,000원**

대만 타이베이/화련 12월 16일, 30일
5일 **990,000원**

베트남 다낭 2020년 1월 1일, 25일
2월 26일
5일 **999,000원**

하노이·하롱베이 12월 28일
2020년 2월 19일
5일 **899,000원**

베트남 니트랑 2020년 1월 8일
2월 19일
5일 **999,000원**

※ 태국(방콕)전세기는 항공권만 포함된 상품입니다. **공동여행** 왕복항공료, 호텔, 차량, 식사, 입장료, 여행자보험, 가이드 **공동 불포함사항** 개인비용 및 유선관광, 부분별 기사/가이드팀(30~50%), 부분별 중국 비자, 부가세V.A.T 별도